남가주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11월 넷째주

도입 기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which sought us Hoe can tongue of man express? His strong hand is watching over us Whether sleeping or awake. He makes all things pleasant for us In the Lord for Jesus' sake.
2. God renews our failing powers With His might from day to day, And in mercy on us showers Grace sufficient for the way. Though the loveless streets be dreary Harsh and bleak the mountain ways, We shall walk and not be weary Clasp His hand and sing His praise.
3. Daily closer comes the promise When again we see the Lord, Every burden taken from us, Every joy in him restored. Back at home my room is waiting I shall walk in through that door. Join my Father celebrating, And with Him live evermore.

본문 요한복음 5: 40-44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John 5: 40-44

40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41 "I do not accept praise from men, 42 but I know you. I know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in your hearts. 43 I have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ou do not accept me; but if someone else comes in his own name, you will accept him. 44 How can you believe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yet make no effort to obtain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설교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신뢰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원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여러 증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분의 신적 권위를 나타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 5:4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종교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44절에서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 신앙 활동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응답받은 기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삶이 어렵고 우리의 기대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를 넘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깊이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예배로 응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설교

We live in a world filled with different voices telling us what to believe, how to live, and where to find meaning and happiness. We often look for evidence before placing our trust in something. We want to be certain that what we believe is true. But when it comes to faith in Jesus Christ, the greatest challenge is not always the lack of evidence. Sometimes, it is the unwillingness of our hearts to accept the truth. In John 5, Jesus explains that there are multiple witnesses testifying to who He truly is. John the Baptist testified about Him, His miraculous works revealed His divine authority, the Father bore witness to Him, and even the Scriptures pointed to Him. Yet despite all these testimonies, many religious leaders refused to believe. Jesus confronted them, saying,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John 5:40). The religious leaders knew the Scriptures well. They studied God's Word diligently and considered themselves faithful to God. However, they failed to recognize the very One to whom the Scriptures pointed. Their problem was not a lack of religious knowledge but a heart that sought human approval more than God's glory. Jesus exposed this in verse 44, asking how they could believe while seeking glory from one another rather than from God. This challenges us to examine our own faith. We can attend church, study the Bible, and participate in Christian activities while still keeping Jesus at a distance. We may know many things about Jesus without truly knowing Him. Faith is more than accumulating biblical knowledge or following religious traditions. It is coming to Jesus personally, trusting Him, and surrendering our lives to Him. As we approach Thanksgiving, we are reminded that the greatest reason for gratitude is not simply what God has given us, but that He has given us Jesus Christ Himself. We often measure God's goodness by our circumstances, answered prayers, or blessings we can see. Yet even when life is difficult, we have an unchanging reason to give thanks: God has revealed Himself through His Son and graciously invited us to receive eternal life. What greater gift could we ask for? The ultimate purpose of Scripture is to lead us to Jesus Christ, the source of eternal life. This Thanksgiving,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more than gratitude for the blessings we have received. May we be deeply thankful for the One who gave His life for us. True thanksgiving begins when we recognize the immeasurable worth of Jesus Christ and respond to His grace with hearts of faith, love, and worship.

나눔질문

1.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merely knowing facts about Jesus and personally coming to Him in trust?
2.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42절)이 없었습니다. 나의 성경 읽기와 신앙 활동이 단순한 지식이나 습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The religious leaders diligently studied the Scriptures yet failed to recognize Jesus, lacking "the love of God" within them (v. 42). What do we need so that our Bible reading and religious habits move beyond mere knowledge and lead us into a deeper, personal love for Jesus?
3.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 중 감사한 제목 한 가지와,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 이유를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 봅시다.
   This Thanksgiving, share one blessing you are grateful for, and most importantly, share why you are thankful for Jesus Himself.

마침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날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Gracious Father, we thank You from the depths of our hearts not merely for our circumstances, but for Jesus Christ, who gave His life for us and granted us eternal life. Help our family to seek the glory that comes from God alone rather than human praise, and to rejoice and give thanks in Jesus every single day. 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